프로젝트 업무 일지

## 엔티티

공백 &nbsp;

: &#58;

- &#45;

> &gt;

## 참고웹페이지

<http://boat-studio.shop/>

<https://www.ekara.org/>

<http://www.greenfund.org/>

<https://so-je.com/>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wVbrQOo1pUrJ9EsHu8fQqsaCVgtW6cvnayaYxlszsz4NVZAGbmbH2xulkKJMa0dv.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ccbaCpno=1273600550000>

https://poclanos.com/featured/%ec%83%88%eb%a1%9c%ec%9a%b4-%ec%84%b8%eb%a0%a8%ec%9d%84-%ec%b0%be%ec%95%84%ec%84%9c-g1nger-%ec%b5%9c%eb%82%99%ed%83%80-charming-lips/

참고문헌웹

1.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brd/board/256/L/CATEGORY/614/menu/253?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614&bbIdx=5334&brdType=R&tab>=

2.성동구문화관광

https://www.sd.go.kr/tour/contents.do?key=1986

3. 전북중앙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545>

->전시 정보- 전주공예품전시관 주제: “짜임, 죽, 목”

4.울산제일일보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733

5.뮤지엄뉴스

https://museumnews.kr/134exmiri/

## 2023.01.12

소목장

- 폰트찾기

- 슬라이드 이미지

- index / header / slideshow / main / footer

- main – 보도자료, 공지사항(게시판), 영상링크

- header menu

소개

전시

공지사항

연락

- database

Members

Boards

News

exhibition

## 2023.01.13

로그인 //로그아웃 // 회원정보수정

컨셉 더 확실히 하기

* **컨셉은 개인가구 공방**
* 작가 소개
* 작품 모음집 or 전시
* 게시판 (공지) : 메인에는 admin이 작성한 게시물만 / 게시판에도 admin이 작성한걸 맨위로… 될까?
* 연락 (가능하다면 지도)
* (가능하다면) 주문 폼

연락(명함)

묻고답하기(관리자가 올린것만 메인페이지 공지 사항으로)

## 2023.01.14

Main.php 공지사항에 a 걸기

작품 전시 소개 페이지 완성 꼭 => 모달페이지 적용하고 싶은데 스크립트가 적용이 안돼서 php파일안에 적게 생겼음;;

참고 블로그 : https://velog.io/@wannabeing/%EB%AA%A8%EB%8B%AC%EC%B0%BD-HTML-%EC%9D%B4%EB%AF%B8%EC%A7%80-%ED%81%B4%EB%A6%AD-%EC%8B%9C-%EC%9B%90%EB%B3%B8-%ED%81%AC%EA%B8%B0%EB%A1%9C-%EC%9D%B4%EB%AF%B8%EC%A7%80-%EB%B3%B4%EA%B8%B0

헤더 스크롤 고정 –sticky 속성 적용했지만 안되고 있음

소개페이지 텍스트

-Font 정리 미치겠다.

-회원가입, 로그인 폼 정리(색깔…)

-게시판 댓글 정리

-로그인 회원정보수정 엔터키

-목재 확대 이미지 이미지바 헤더 밑에

-반응형 헤더 두껍게 메뉴는 column으로

이슈해결:

* 메인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세션값 없이) 공지사항을 볼 경우

유저가 작성자인 경우 보여줄 수정/ 삭제 버튼 조건문을 세션값으로 걸어두었기 때문에 에러 발생.

세션값없을 경우 null 셋팅해주어서 해결

* 해결은 아니지만 폰트가 적용되지 않을 때, fontfamily의weight 때문일수도 있으니 font-weight 속성을 없애고 테스트 해보는 것이 좋다.
* Position: fixed의 경우 float 해놓은 객체들 때문에 레이아웃이 무너질 수 있다.
* 모달창 js가 적용이 안돼서 php 내부에 script를 적었는데 그조차 상부에 적으면 적용이 안돼고 바디안 맨밑에 적어야만 했다. 그래서 해결은 defer였네 진짜 띠용

## 2023.01.15

-작업페이지 꾸미고 디비랑 연결할지 결정 height 400px

-게시판 디자인 수정 오류테스트

-slide 이미지 사이즈

-작업 주문서 form

-procedure / trigger

## 2023.01.16

-관리자 모드 (회원 검색기능/ 정보 이메일 보내는 방법)

-게시판 이미지

-쪽지

-이미지게시판 => 전시 포스터 **A2(420X594),**

-main 페이지에 전시 포스터 ->클릭하면 imageboard\_view.php

## 2023.01.17

-지도

-이미지게시판 데이터 테이블 수정

-디자인 전체 수정(관리자 페이지 보드 부분)

->imgboardview.css 수정중

-main 폰트 바꾸기

-할수있으면 트리거 / 프로씨져

-데이터 넣고 발표준비

-관리자모드 페이지 깨짐 수정(class name 실수 css )

**소목장-맞춤의 미학, 무르익는 모순덩어리**

소목장(小木匠)은 나무로 전통생활가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이다. 주로 궁궐 사찰 주택 등 큰 건축물을 짓는 장인은 대목장(大木匠)이라 한다. 소목장은 기후 자연환경 목재의 채취에 따라 살림공간과 가옥구조에 알맞게 생활가구를 제작한다. 소목가구들은 옷가지를 넣는 농과 옷걸이장, 책을 쌓아두는 책장, 선비들이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문방구류,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품 등이다.<br><br><br>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생활가구 기록은 고구려 고분벽화인 무용총(舞踊塚)과 안악고분(安岳古墳) 등에서 나타난다. 백제시대 때는 무녕왕릉에서 발굴된 두침과 족좌 등이 있으며, 신라시대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생활용품의 목각 등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중상서(中尙書) 조를 보면 소목장 나전장 등의 명장이 있어 이미 전업으로 국가기관에서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귀족들의 사랑방 꾸미기로 기품 있는 생활가구가 이들의 전횡물이 되면서 가구공예는 크게 발달했으나 이를 만드는 장인들은 천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br><br><br>

조선 전기까지는 목가구가 주로 왕실과 상류계층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널리 보급되고 종류도 많아져 지역적인 특성이 현저히 나타나게 되었다. 주로 서울과 호남평야지대, 평양지방에서 발달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경남 충무지방에서 소목장 기술이 발달되어 지금까지 ‘충무 민장롱’이란 하며 널리 이름이 나게 된다. <br><br><br>

남도(南道)지역의 경우 나무의 무늬를 귀하게 여겨 옻칠을 하지 않은 민장롱을 주로 제작하였는데, 통영지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남 화순 동복(同福)의 장(欌)은 문양과 옻칠·장식 등을 모두 겸비하고 있고, 먹감나무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소목가구는 대체로 원목을 사용하여 목재가 지닌 나무결을 최대로 살려서 자연미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소목가구는 전통가구의 형태와 규격·기법·문양을 근거로 제작되었다. <br><br><br>

**제1대 중요무형문화재 소목장 천상원 선생**

고 천상원 선생 일가는 충무에서 여러 대를 이어 소목장으로 일해 자연스레 ‘장인 대가’를 이뤘다.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으로 지정된 천상원 선생은 집안 내림에 따라 이 길로 접어든다. 경남 통영시 문화동에 있는 수십 년째 살아온 누옥에서 천 선생이 소학교 시절 열 살 때 처음 소목일 접한다. 아버지 천철동 선생에게 어깨너머로 보면서 톱과 대패를 잡기 시작해 열네 살 되던 해 공방에 눌러 앉았다. 선친 밑에서 10여 년 간 소목장으로 성장해 가던 대에 태평양전쟁이 터져 징용을 피할 겸 목수일도 더 배울 겸 경남 진해에 있던 군수용 목공장 공원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곳 생활은 예술의지나 장인정신을 확장하는 장인의 길이 아니라 표준화된 군용 책상 따위나 만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능공으로서 직장일 뿐이었다.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조형성을 갖춘 조선목가구를 만들겠다는 장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그런 감옥 같은 공원생활도 ‘8․15 해방’과 함께 해방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과 휴전 뒤 불어 닥친 산업화 물결은 그에겐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 주린 배를 채우기 어려운 시절, 고가의 목가구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전승기반이 무너져 가는 흐름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통공예전승을 위한 정부정책이 세워지고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면서 전국전승공예전에서 만들어지고, 1969년 부친이 큰 상을 받으면서 이 일에만 매달려 아버지가 작고한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소목장은 예술의지나 장인정신을 확장하는 장인의 길이 아니라 표준화된 군용책상 따위나 만드는 매너리즘에 빠질수밖에 없는 기능공 이었다. 해방 이후 주린배를 채우기 어려운 시절, 고가의 목가구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전승기반이 무너져 가는 흐름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정책이 세워지고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면서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고 천상원 선생이 장기를 보인 작품은 좌경 문갑 사방탁자 이층장 삼층장이었다. 그의 특기는 먹감나무 은행나무 개옻나무 등 무늬 결이 아름다운 판재에 뇌문을 박은 다음 얇게 켜서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뇌문 박은 통영 목가구 전통은 그의 제자 김금철 선생이 배우기 시작하여 1977년 전수장학생, 1982년 소목장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우리목가구의 멋과 아름다움

2022.12.10~2023.02.05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무형유산대전

2022.01.05~2023.06.23

목가구, 삶을 담다

2023.02.10-2023.06.0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짜임, 죽, 목’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5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에서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소목의 짜맞춤과 채상의 엮음에 담긴 장인의 섬세한 기술, 작품에 담긴 조형성에 주목한다.

전시 작품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승공예품 은행제’의 작품들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 뿐 아니라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작품을 포함해 총 28점이다.

이번 기획전에는 소목장 소병진 장인의 전주단층장, 채상장 서신정 장인의 오합채상, 소반장 고 이인세 장인의 구족반 등 전통 공예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작품이 전시 중이며 한편에서는 아카이브 영상이 상영돼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예부터 귀한 것을 담아 보관하는 함인 ‘채상’, 식기를 받치거나 음식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한 ‘소반’, 빗이나 뒤꽂이 등 장신구를 넣어두는 소함인 ‘빗접’등의 작품에서는 선조들의 기술을 고스란히 이어온 장인들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김선태 원장은 “장인들의 지혜와 경험, 기술이 응축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며 “각각의 작품이 가진 고유의 형태와 아름다움에 빠져보는 모처럼의 여유를 가져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리벌민속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리벌민속박물관에서 ‘목가구, 삶을 담다’ 공동기획전을 개최한다. 목가구가 우리네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구성된 이번 전시는 미리벌민속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선조들의 일상과 삶을 담는 ‘경상’, ‘삼층장’ 등 목가구 110여 점을 선보인다.  
‘목가구, 삶을 담다’ 전시는 예로부터 집안 곳곳, 생활 가까이에 두고 사용한 다양한 목가구에 담긴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꺼내 보고자 기획되었다. 목가구는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공간과 함께 보아야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글 읽는 선비의 벗인 책을 놓는 경상, 손끝으로 정성스레 매만진 가족의 옷가지를 보관하는 장과 농, 정성을 다한 음식을 담아내는 소반 등 사랑방, 안방, 부엌 공간에 놓인 손때 묻은 가구에 담긴 삶의 흔적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1부 ‘사랑방 가구 지식을 채우다’**에서는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에서 사용한 목가구가 전시된다. 선비들이 학문 정진을 위해 늘 곁에 두었던 경상, 벼룻집 등 문방가구를 중심으로 나뭇결로 자연의 멋을 살린 문갑, 책장 등 소박한 가구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표암 강세황이 쓴 시구가 적힌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17호 ‘표암 강세황 행서 팔곡병은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2부** **‘안방 가구 살림을 꾸리다’**에서는 여성의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한 목가구가 전시된다. 여성들이 가족에게 필요한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가꾸는 데 필요한 삼층장, 애기농 등의 수납 가구, 자개 등으로 멋을 낸 빗접 등 화사한 안방 가구를 선보인다. 특히, 상류층 사람들이 안채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한 ‘아亞’자 모양의 사방 난간이 있는 안방용 평상도 전시된다.  
**3부** **‘부엌 가구 정성을 다하다’**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엌에서 쓰는 목가구가 전시된다. 한솥밥을 먹는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마련하는 여성들이 들고 나르기 좋은 소반과 함께 튼튼하고 간결한 구조의 찬장, 뒤주 등의 부엌 가구,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마음을 담았던 떡살 등의 생활도구가 전시된다. 특히, 명절 모임이나 축하연 같이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쓰는 교자상도 소개된다.  
한편,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생활사를 발굴하고 지켜가기 위해 이번 전시에서는 밀양시 초동면에 거주하는 박재홍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목가구를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다.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통해 가구에 얽힌 추억과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닫이랑 함은 1948년도에 어머니가 시집오실 때 다 가져오신 것들이야. 시집오실 때 예물하고 옷감을 넣어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함에도 보면 물목이라고 해서 ‘여덜필 광목’ 이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 어머님은 저 안에다가 옷을 넣어두고 사용하셨었지. 반닫이하고 저 함은 우리 부모님의 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식 된 도리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내 아들들한테도 물려 줄 거야.”*  
– 박재홍 인터뷰 조사 내용 중에서 –  
이번 특별전은 1998년 문을 연 미리벌민속박물관의 개관 이래 첫 전시 개편으로, 전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개인 소장 목가구 전시를 통해 지속해서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문화를 발굴·소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디비생성

Index 페이지가 로드되면 create\_statement.php 로

디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생성, 선택 / 테이블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생성 되도록하고 / 회원 삭제시 데이터가 저장 되도록 트리거 생성

주의할점은 비밀번호를 hash값을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varchar(255)

1. 메인페이지

메인에 슬라이드 이미지 세장이 지나가고 하단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게시물만 로드하여 공지사항 보여주고 해당 게시물로 링크, 가운데는 전시 포스터 이미지 보여주고 해당 전시 상세 페이지로 링크, 유튜브 재생 링크

1. 회원가입

아이디 중복 체크 , 이메일 유효성 검사 javascript test()함수이용

1. 로그인

Members 테이블에서 체크 password\_verify를 이용해 해시값 비교

\*관리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워크벤치에서 level값을 1로 변경 update set~~

1. 관리자 페이지

회원의 포인트, 레벨 삭제. 삭제시 트리거 작동해서 저장됨

1. 쪽지

Getpaging

-page 값을 get 방식으로 받는다. 메인에서 들어온다면 1

- 페이지당 보여줄 레코드 수를 정한다 scale

- start첫번째 레코드 위치는 (페이지-1)\* scale

- select count(\*) 쿼리문으로 전체 레코드 수를 구한다

-전체 페이지수는 전체레코드 나누기 scale 하고 올림(ceil)

- limit start, scale 로 해당 페이지의 레코드만 가져온다

-number 보여줄 레코드의 번호는 전체 레코드수 - start

-